



불교신문



1960년 1월 1일 창간 주1회 발행 제3688호 대표전화 (02)730-4488

ibulgyo.com

(2021년 / 단기 4354년 음력 9월21일) 불기 2565년 10월 26일 화요일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명사 법계품서식이 10월21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불 앞에서 거행됐다. 사진은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대중사가 요산 지안대중사에게 법계증을 수여하는 모습. 박광호 대구경북지사장 daegu@ibulgyo.com



부처님 진신사리가 모셔진 불보종찰 통도사 금강계단을 돌며 삼보사찰 천리순례 대장정이 막을 내렸다.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해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불보종찰 통도사에 이르는 18일간의 순례는 불교종흥의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를 받음한다. 김형주 기자

종단 최고 법계 ‘대종사·명사’ 품서 대장정 회향... ‘불교종흥’ 출발점 섰다

(423km)

종정예하 “정법구주” 당부
비구 66명·비구니 16명
“광도중생 융맹정진” 발원

“불기 2565년 오늘 이곳 팔공산 동화사 청정도량에서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명사 법계를 품수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대중이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 없이 융맹정진할 것을 발원합니다.” 10월21일 팔공총림 동화사 통일대불 앞에서 거행된 대종사·명사 법계 품서식에서 허허 지명대종사가 스님들을 대표해 발원문을 낭독하며 광도중생의 대원에 이르도록 물러남 없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관련기사 2면

이날 품서식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야외에서 봉행됐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대중사와 원로회의 의장 수봉 세민대종사, 총무원장 원행스님, 법계위원장 원경 성진대종사 등을 비롯해 대종사 명사 법계를 품서 받는 스님들이 참석했다.

삼귀의, 한글반야심경, 고불문 낭독에 이어 스님들을 대표해 법도스님과 명수스님이 부처님 전에 꽃공양을 올렸다. 이어 종정예하가 지안스님에게 대종

사 법계증을, 의현스님에게 25조 대가사를 내렸다. 또 명사 법계 스님들을 대표해 영운스님이 법계증을, 일범스님이 대가사를 수여받았다. 스님들은 가사를 이마 위로 올리는 정대를 행하고, 가사를 수한 뒤 부처님 전에 삼배의 예를 올린 뒤 대종사, 명사로써의 첫 걸음을 내딛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깨달음과 지도자의 상징인 불자를 현봉스님에게 봉정하고, 깨달음과 자비의 상징인 여의를 문도스님에게 증정했다. 품서식에서는 비구 66명, 비구니 16명의 스님이 대종사·명사 법계를 받았다.

이날 진제 종정예하는 법어를 통해 “종단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명사는 일평생 올곧은 수행으로 지혜와 덕성을 두루 갖추었으니, 이는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이요, 만고의 귀감”이라고 설했다. 이어 “대종사·명사시여, 각급의 인연은 입문자재의 한가로운을 누리심과 동시에 종강을 바로 세워 부처님 수행가풍을 다시금 부양해 정법구주에 나서야 할 때”라며 “또한 연민과 자비로 고통 받는 중생들을 섬수하고 행화에 매진해 광도중생에 나서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도 축사에서 “종도들의 사표이신 대종사 명사님들께서는 종강을 바로 세워 대중이 화합하고 조계

종풍이 선양하는데 일심으로 정진해 오셨다”며 “세상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정법의 당간지주를 드높여 불조 해명이면 면히 계승될 수 있도록 후학을 이끌어주시기를 앙망한다”고 밝혔다.

동화사=홍다영 기자 hong12@ibulgyo.com
박광호 대구경북지사장 daegu@ibulgyo.com

송광사에서 통도사까지 순례
불교종흥 씨앗 띄워 ‘디딤돌’

불법승 삼보사찰을 걸어서 순례하는 18일간의 대장정이 10월18일 막을 내렸다. 10월1일 승보종찰 송광사를 출발해

화엄사, 실상사를 거치며 전남에서 전북으로, 다시 경남으로 지리산을 두 번 넘었다. 법보종찰 해인사를 거쳐 영남의 가장 험악한 산악지대 사자평까지 넘어서며 불보종찰 통도사까지 순례의 원력 ‘불교종흥’과 ‘국난극복’을 되새겼다.

▶관련기사 4,5,6,8,9면

5개 광역시도와 12개 시군을 거친 423km는 서울과 부산의 직선거리다. 천리순례라는 이름처럼 국토의 3분의1을 걸었다. 108명의 순례대중과 지원단을 합치면 150명. 매일 참여한 일일참가대중을 더한다면 하루 평균 200명이 움직였다.

삼보사찰 순례는 사부대중이 한마음 한뜻으로 사찰을 찾아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가장 기본적인 신행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담았다. 사부대중이 함께 신심과 원력의 길을 걷고자 함이었다. 험준한 산을 넘는 고난에 버금가는 첫걸음의 위험, 며칠이나 이어진 비바람과 오돌토돌 떨어진 하얀 급작스런 추위로 순례단의 발걸음을 멈춰 세우지 못했다. “첫째도 포교, 둘째도 포교, 셋째도 포교”라는 상월선원 만행결사 회주 자승스님의 리더십이 그때마다 힘을 발휘했다. 가장 먼저 일어나서 순례를 이끌었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순례단 한사람 한사람의 지무는 받을 어루만졌다.

순례단은 몸은 고됐으나 18일의 걷기 순례를 통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얻었다.

무엇보다 큰 소득은 간절한 원력의 힘을 체험한 점이다. 이 한 몸 부서져도 원력을 이루기 위해 해낼 수 있고, 그 원력이 대중으로 모아진다면 그보다 더 큰 동력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미래 한국불교에 희망의 다리를 짓는 불사에 디딤돌을 놓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이제 18일 대장정의 대미 통도사 금강계단에서 마추한 벅찬 감동을 모든 불자, 나아가 새롭게 불교와 인연을 맺을 이들과 함께 나누는 불사로 이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삼보사찰 천리순례는 막을 내렸으나, 순례길을 새로 여는 출발점에 선 것과 다를 바 없다. 회주 자승스님의 말을 곱씹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가는 길이 맞다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한다.”

박봉영 기자 bypark@ibulgyo.com
이경민 기자 kylee@ibulgyo.com

■ “불교평화 정청래 의원 제명” 촉구 움직임 확산

5.11면



조계종 종정 진제예하께서
창건하신 남해 성담사에서
재가불자 선원인
「국민선원」을 개원합니다.
참선수행하시는 전국의 신심
있는 재가불자 여러분의
신축년 동안거 방부를
접수 받습니다.

방부안내

결제 불기2565(2021)년 11월 19일(음력 10월 15일)

해제 불기2566(2022)년 2월 15일(음력 1월 15일)

장소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 245-7

- | | | |
|---------|------------|-------|
| ① 대웅전 | ⑥ 국민선원 | ⑪ 공양실 |
| ② 염화실 | ⑦ 조국통일 범종루 | ⑫ 해우소 |
| ③ 불조심인전 | ⑧ 요사채1 | ⑬ 방생지 |
| ④ 극락전 | ⑨ 요사채2 | |
| ⑤ 선림선원 | ⑩ 대자전 | |

성담사
· 경남 남해군 삼동면 금송로 245-7
· 문의 055-867-9999, 010-9172-9997
· 불사후원계좌
동협 3510-6150-05133
사)대한불교조계종진제선세화회